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필요…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김진표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헌 선거제도 사표 다수 발생
비례성 강화, 협치 구도 필요
개헌특위 산하 공론화위 구성
혼연일체 마음으로 위기 극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에 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풀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

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

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꺾듯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하도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지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나경원 “자리 연연 안해… 당 대표 출마 고심” “대기업, 전략성장 산업 맞춤형 지원 원해”

“무엇보다尹 정부 성공이 중요
여론조사 선두, 지지자에게 감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11일 “아직, 출마·불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



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

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위 부위원장직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적합도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대해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김건희 여사, 대구서 봉사활동 하고 시장서 상인 격려

설 앞두고 어르신 급식봉사
서문시장 찾아 성수품 구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 급식 봉사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11일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급식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여사는 인근 지역 거주 어르신 120여명에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묵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시식한 뒤 상인과 재방문을 약속하고 있다. /뉴시스

품과 식자재들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서문시장 양말가게에 들러 300컬레를 직접 구매하고 이날 오전 배식 봉사활동을 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양말가게는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점포를 열어 재기에 성공한 곳으로 전해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더불어민주당 대책위 경제세미나
“반도체 등 분야에 세액공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열고 이미 예정된 복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동산 위기

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중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표를 언급하며 “15대 주요 품목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가 잘 되고 강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가 어렵다. LG디스플레이에서 텔레비전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DE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디램(DDR4 8기가바이트 기준) 가격은 5년간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2022년 수익 예상치는 약 44조원에서 2023년 약 17조원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등의 도시들의 주택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홍 의원은 지난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 과정에서 일었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략

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필요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다가 세액공제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나 고용 등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지 않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맞춤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책임은 한은에

농협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송 전 부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계부채의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선 지금의 금리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9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상을 막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시기에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이 구간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민생재정 추경안을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법제화 ▲6개월 물가상승분에 대한 전국민 물자지원금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을 주요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박태홍 기자